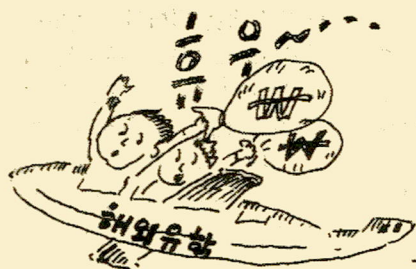


결혼과 여성의 지위—서울 유학만큼 흔해진 외국유학

낯선 나라 모텔에서 상봉하는 모자들



대학 원서 접수가 끝난 직후 여자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어디나 교육이야기가 벌어졌다. 한다리 두다리 걸러보면 수험생 없는 집이 없고 언젠가 대학입시를 맞닥뜨려야 할 예비 수험생들이 있는 집이니 처음 만난 사람들이라도 교육 문제에 대한 걱정은 여자들의 공감대를 이루기에 충분하다.

서초동의 한 미장원에서 아주머니와 젊은 할머니 너댓이 모였는데 아이들 대학보내는 이야기로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번엔 윤이래”, “수능 시험은 공부해도 소용없대요. 그러니 순전히 윤이지요. 윤.”

“2차가 더 어려웠대요”, “괜히 두번이나 본 거라고요.”

“첫째에는 잘 들어갔는데 이번 둘째는 불안불안해요.” “우리 조카는 미술을 해요. 예체능 하는 애들 중에서는 성적이 제일 좋았대요. 그런데도 윤이 없으니까 수능 성적이 그렇게 안 나왔대요.”

엄마들의 교육문제 토론을 가까이서 듣고 있다면 이들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대단히 불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년에 대학에 실패해서 재수를 하고 있는 아이나, 재수를 하고 있지 않은 아이나 엄마들의 말 속에서 등장할 때는 항상 “평상시에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윤이 나빠 시험성적이 나쁜 수험생”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현행 교육제도가 불만인 미장원의 토론자들은 무언가 제도가 바뀌어야 한데 모든 동의하고 있었다.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들어갈 때 자유롭고 나오기 힘든” 외국식의 대학제도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엄마들은 말한다.

새로 등장한 애깃거리 ‘외국 유학 시키기’

국제화 시대라는 요즘의 추세를 반영하듯 엄마들의 교육 토론에 단골 메뉴로 등장한 이야깃거리가 바로 외국 유학에 관한 것이다. 옛날 같으면 유학이란 우수한 젊은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나서 맨손으로 선진국에 건너가 배움면서 악착같이 공부해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금의환향하는 구조가 전형적인 이야기거리였다. 보통 사람들과는 좀 먼 애깃거리였다.

그러나 요즘의 유학이란 동네의 조그만 미장원에 파마하러 온 평범한 아주머니들도 저마다 한가지씩 할 이야기가 있게 됐다. 옛날에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오던 것 정도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는다.

위에서 만난 미장원 아주머니들의 교육토론도 자연스럽게 외국유학으로 흘러갔다.

“우리 친구 애가 고등학교 다니다가 호주로 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부모 젊었을 때 나간다고 하니 다행이다 싶어요. 늙어 꼬부라져 무능력해 있는데 나가서 공부하겠다고 해봐요. 안 보낼 수도 없고 골칫거리지, 아예 어려서 나가겠다고 하니가 좋았더라구요.”

“여기서 별로 잘하던 아이도 아는데 미국 가서는 아주 잘한대요. 여기서 대학도 못가고 열등감에 싸여져 있는 것보다는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백번 낫지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외국유학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학자의 길을 걷기로 한 특수한 소수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었다. 그 이전의 유학은 무언가 사치스럽고 허영이 있는 반사회적인 행동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감히 해외유학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대신 엄마들은 고액과외와 부정입학의 열풍을 일으키는 것으로 자식 뒷바라지를 대신했다. 해외유학은 교육열 강한 한국 엄마들이 개척한 또하나의 길인 것이다.

‘유학경비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한국에서의 고액과외비와 비교하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부정입학 시키는 것에 비하면 자기 실력으로 대학갈 수 있으니 훨씬 정당하며, 아무리 허

송세월을 한다 해도 영어 하나는 건져올 것이므로 성과는 충분하고, 대학입시라는 지옥에서 아이를 벗어나게 해주니 훨씬 좋다’는 계산을 하는 사이에 엄마들의 눈에는 점점 외국 교육제도의 좋은 점들이 크게 보여진다.

93년 가을에 중학교 3학년인 딸아이를 미국 커네티컷의 사립학교로 유학보낸 어머니 신 씨는 우리나라의 확실적인 교육이 못마땅해 유학을 결정한 경우다.

화가가 되고 싶다는 딸의 재능과 희망을 살려주고픈 신 씨는 미국의 교육제도가 테크닉보다 정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예술가로 커가는 데 훨씬 좋은 환경이라고 판단했다. 이 딸은 국민학교 고학년을 홍콩에서 보낸 탓인지 기본적인 산수와 언어에서 약점을 보여왔다. 미술가가 되는데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조금 모자란다는 이유 때문에 이 딸아이는 크게 주눅들어야 하고 가고 싶은 대학을 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예고 진학을 위해서 미술학원에 다녀보았으나 입시 미술교육이란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외워서 그리기’에 지나지 않아 예술과는 영 거리가 멀다는 것.

미국에 간 딸아이는 무척 외로와 하고, 심리적으로 고생하면서도 부쩍 성장한 것 같다고 말한다.

“미국에서의 고생도 커요. 언어부터 시작해서 교우관계,

문화 등 모든 것이 낯선 환경을 자기 것으로 만드느라 힘든 것이예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고 외로움을 견뎌야 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강해지고 성숙해진다고 봐요. 이 나라에서 아이가 겪는 고통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고통이예요. 공부 그 한가지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책임에서 제외되는 그런 고통이예요. 미국에서는 매일 체육을 두세시간씩 시키는데 젊은 아이들 운동으로 힘을 빼게 하는 게 좋거든요. 공부만 시키고, 미술만 시키는 우리 교육보다는 무엇을 하더라도 운동 열심히 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남편의 근무지인 미국 워싱턴에서 2년째 살고 있는 변 씨도 해외유학에 서슴치 않고 찬성표를 던진다. 3남매의 학교교육을 경험해보면서 내린 결론이다.

“한국에서 꼴찌하던 아이가 미국에 와서 대통령 상까지 받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학교마다 오케스트라가 있고 체육 열심히 시키면서 교사들이 아이들의 잘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최선을 다해요. 한국에서의 교육은 아이들이 못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 시험을 보고 성적과 공부라는 것으로 아이들을 주눅들게 만들지만 여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자긍심’이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변 씨 역시 미국유학 선택

은 아이들에게 혼자 인생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방법과 힘을 길러주는 것이 유학생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에서 수험생은 집안의 상전이라고 아무 것도 안하잖아요? 오직 시험 성적만을 올리기 위해 온실에다가 보호하지요. 우리 이웃에 한 부자집 아들이 중학교 때 유학을 왔어요. 그 애 하는 말이 자기는 인생이라는 것이 미리 다 준비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알았다고 해요. 그 애는 여기서 학생회장 선거에도 출마하고 아주 열심히예요. 여기서는 유교식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바보와 같아요. 한국식의 예의바른 아이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지요. 능동적 기질이 자연스럽게 길러져요.”

도피성 해외유학도 있을 것이고 미국생활에 부적응한 아이들에 대한 걱정도 가능하다. 한국에서 혹독한 학업 수련에 잘 훈련된 한국학생들은 다른 나라 아이들보다 좋은 평가를 받아내고 있다고 한다. 또 마약 등의 미국내에서의 탈선은 일부의 이야기이고 대부분 고생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전한다.

하숙비 아끼려고 집 사두는 엄마들

이제 해외유학은 “웬만큼 사는 집이라면 다 고려해보는” 문제이며 미장원에서도, 목욕탕에서도 여자들의 수다 메뉴로 끼어들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외국의 사립고등학교 등록

금을 일년에 2만 5천불 정도로 잡고 엄마가 미국을 왕래하는 비용 등까지 합하면 최소한 일년에 3천만원 정도는 들어야 한 아이의 해외유학을 시킬 수 있다고 엄마들은 계산하고 있다. 한달 2백 5십만원 정도의 비용이 한 아이의 교육비로 든다는 이야기가 된다. 월 2백 50만원의 대기업의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서 가능한 월급이니 무척 많은 교육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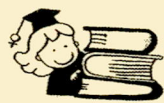
그러나 한국 엄마들의 계산기에는 이 교육비를 그렇게 많지 않은 돈으로 환산해주는 집이 들어 있다.

“좋은 선생한테 영어 수학과 과목 과외하려면 한달에 180만원씩 줘야 한대요. 돈들고 애 헛고생시키고, 비교하면 유학비 들이는 게 낫지요.”

또 생활비로 드는 돈을 아껴야겠다고 생각하는 ‘또순이’ 기질의 한국엄마들은 아예 집을 사두기도 한다고 한다. “집에 물어둔 돈은 그대로 남는다”는 한국식 계산기란다. 집을 사두었으니 엄마가 미국으로 건너가야 할 이유가 생기고 남편 직장까지 바꿀 수는 없으니 부부간의 생이별을 하게 되는 일도 생겨난다. 아이들 교육이 빚어내는 결혼생활의 파장도 크다.

지금으론 해외유학은 조금 발빠른 엄마들이 집어드는 카드다. 그러나 이 카드는 입시지옥을 벗어나려는 엄마들이 선택한 것임을 잘 고려해야 한다. 날이 갈수록 좁아지고 끔찍해지는 학교교육을 피해 다른 나라 땅 모텔방에서 모자 상봉을 하는 진풍경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결혼한 여성들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임을 말해주고 있다. 애들 교육을 위해 낯선 땅 모텔방까지 쫓아가야 하니 말이다. 조금 길이가 길고 금으로 만들어진 족쇄를 찢아내서 자유인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의 개혁, 학교교육의 정상화는 여성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마련돼야 할 첫번째 디딤돌이다.

<김효선 기자>



여성학 사전 ①

● 나이(Age)

“나이가 많다는 것은 병이 아니다. 그것은 구원(久遠)의 상승이다.

기력이 줄어들며 따라 우리는 빛을 향해 성장한다.” (Mary Sarton, 1982)

● 에이디(A. D.)

‘도전 이후’ (After Defiance)의 약어.

● 아담(Adam)

이브의 짝. 쉽사리 끌려가는 남성. 역사상 최초의 비기능적 가장. 사과를 먹고 그 책임을 전가했다.

● 아나키즘(Anarchism)

그리스어 ‘아나르코스(anarchos, 지배자가 없는)’에서 유래함. 이것은, 어느 누구도 힘으로 또는 힘의 위협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하는 소극적이고 혼계적인 어조에서 표현되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에 대한 단언이다. ...우리는 ‘아나코-페미니즘’ (Anarco-Feminism) 이아말로 세계 역사상의 이 시점에서 궁극적이고도 필요한 급진적-어떤 형태의 마르크스주의보다도 훨씬 더 급진적인-입장이라고 생각한다. (Siren, 1983)

<자료제공:이동욱/도서출판(청천) 대표>